



아산 맑은 쌀

발행인: 아산시청 강희복/편집: 공보체육과/우편번호: 336-701/주소: 충남 아산시 온천동 1626/전화: (041) 540-2221/팩스: (041) 540-2162/http://www.asan.chungnam.kr

## 아산시 문화 지표 개발, 문화도시로의 첫걸음

경제발전과 더불어 삶의 질이 향상된 오늘날 사회에 있어서 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욕구는 어느 때보다 그 열기를 더하고 있다. 그래서 각종 문화 프로그램이 공공기관이나 시민단체 등을 통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참여 활동도 매우 활발하다. 바야흐로 문화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문화는 이제 모든 분야에 감초처럼 자리잡아 가고 있으며 행정 기관 역시 문화 부문에 대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과 기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문화적 욕구가 충족되기에는 왠지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시민

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욕구가 문화 행사 몇번으로 해소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가 다문화화되면 필수로 문화적 욕구 역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하게 변해 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문화 행사에서 탈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문화 정책을 수립해야 할 때이다. 이는 아산시가 오래 전부터 추구해온 바이다.

이에 아산시는 보다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문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는데 필요한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아산시 문화 지표"를 조사 분석할 계획이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아산시 문화 정책은 보다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어 문화 도시 건설의 기틀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순화된 문화 도시로서의 아산의 이미지가 한층 살아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경제의 고부가 가치를 창출 해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간의 균형있는 개발이 가능하여 아산시민들이 골고루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번에 아산시가 추진하는 문화 지표 체계 조사 분석은 문화 시설 및 공

간, 문화 활동, 문화 산업, 문화 행정 및 문화 수요 등 5개 관심 영역에 약 30여 개의 세부 관심 영역 및 다수의 지표들로 구성된 지표 체계를 만들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아산시 문화 현황 전반에 관한 조사 분석을 아산시 자체 인력으로 약 6개월에 걸쳐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두 번에 걸친 문화 욕구 및 문화 의식에 대한 대시민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는 드물게 아산시가 문화 지표 체계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의 전문화를 줄곧 주창해온 민선 3기 아산시 행정의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 하겠다. 이는 도시개발에서만 난개발을 방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문화 부문에서도 난개발을 방지 하겠다는 아산시의 신념있는 시정 철학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 우렁찬 함성, 체육축제에서 온시민의 대화합을

10월2일 시민체육대회 순천향대학교 운동장에서



▲영차 영차!



▲도대체 몇개야?

시는 제10회 시민의날 기념 체육대회를 10월2일 순천향대학교 운동장에서 개최기로 했다. 시는 체육대회가 시의 발전하는 모습을 대내외에 알리면서 전 시민이 참여하는 체육축제로 승화시킴으로써 대화합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예년과 달리 체육행사에 주민화합 차원의 다양한 경기 및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읍·면·동별 순위를 가리는 인장상과 하한상, 장려상, 경리상 부문에도 어르신과 장애우의 참석을, 전체 참석인

원수에 따라 차등의 점수를 배정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민이 함께 참여해서 협동과 단결로 승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줄다리기와 바구미를 이신 팀에게 높은 점수를 배정하고 긴줄넘기와 뽕꼬리잡기, 지네발 경주도 하나된 마음으로 경기에 임해야 힘을 갈라하여 승리팀이 높은 점수를 가져갈 수 있도록 안배했다.

이와 함께 정경기에 참가점수를 부여해 기관하거나 불참이 없도록 유도 하므로써 많은 시민이 골고루 경기에 참여하게 하고 지역의 명예를 걸고 경기에 임하는 만큼 소속감과 자부심을 느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소외계층까지도 더불어 함께 한다는 취지에서 장애인과 노인, 어린이가 참여할 수 있는 바구니 던지기, 노인 경보대회를 마련함으로써 모든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 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도고초등학교의 사물놀이, 보육인연합회의 어린이무용시합, 아산시 실버밴드공연, 아산시립합창단 연주회를 연계해서 참여하는 다양한 식전, 식후행사로 축제 분위기를 고조와 O.X퀴즈를 통해 전 시민이 참여해 풍성한 향연도 반기는 기쁨도 누릴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시민체육대회가 읍·면·동 소수의 지역민들이 참여해 그동안의 잔치로 치러졌다는 질타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명실공히 전시민이 참여하는 대화합의 체육축제로 승화시킨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 전시민의 참여를 당부 했다.

### ■ 시민체육대회 프로그램

- ▶ 읍·면·동대항 경기: 육상, 씨름, 줄다리기, 훌라후프, 긴 줄넘기, 뽕꼬리잡기, 바구, 시을하고 달리기, 장애물물파경주, 지네발 경주
- ▶ 화합경기: 바구니던지기(장애우 참여), 노인경보, 바구니던지기(노인과 어린이 참여), 소방호스 이어달리기, 학비공물기 및 4인 5각 경기, 긴줄넘기 및 제기대회
- ▶ 시민 화합놀이 및 게임: 강강술래, OX게임

### 넉넉한 한가위 푸근한 고향 아산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장항선 열차의 기적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레일위를 달리는 기차보다도 바쁜 내마를 벌써 저앞에서 가슴 부근 졸달음을 하고 있습니다.

심수년을 떨어져 타향에 있어도 눈에 선한 것이 고향의 들란, 익숙하게만 느껴지는 코스모스 꽃길, 발목을 적시며 다슬기 찾던 시냇가.....

저금은 고숙열차가 두런 가을 들녘을 달려 옵니다. 여기저기 하늘이 닿을 정도로 높은 건물들이 들어선 있기도 합니다. 시원하게 불어선 열풍을 사중작같이 느끼며서 웃을 것입니다.

내 고향 아산은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을 맞이 합니다. 늘 마음을 열고 기쁘게서 푸근하고 정겨운 미소, 변함없는 사랑으로 소중한 당신을 반갑게 기다립니다.

큰 일은 평소의 해미함에서 일어나고 확신을 생각하지 않는 방심에서 일어 난다. <고문진보>

## 제10회 아산시민대상 영광의 얼굴들



▲ 효행부문 정제영



▲ 교육문화부문 강진삼



▲ 사회봉사부문 김형호



▲ 지역개발부문 김희복

제10회 시민의 날을 맞아 시는 그동안 대외적으로 아산시를 선양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해 모범이 되는 시민중 5개부문의 아산시민대상자를 선발하여 10월2일 시민의 날 기념행사(순천향대학교 운동장)시 상패와 함께 순금1냥의 부상을 시상한다. 올해 5개부문의 아산시민대상(이하대상)을 수상하게 될 영에는 ▲효행부문 정제영(남, 51세) ▲교육문화

부문 강진삼(남, 62세) ▲사회봉사부문 김형호(남, 47세) ▲지역개발부문 김희복(남, 63세)에게 돌아갔으며 올해 체육부문 대상자는 없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효행부문의 대상 수상자 정제영은 인주면 신성리에 거주하면서 마을 이장으로 책임을 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로하신 어머니와 지체장애 1급의 작은 아버지를 20여년간 극진히 봉양하여 아버지 섬김을 하느라 같이 하는 효사상을 평소 실천하면서 이웃에게 모범이 된 점을 인정 받았다.

또한 강진삼 교육문화부문 대상자는 40여년간 교직에 몸담아 오면서 환경교육과 글쓰기 교육, 독서 지도를 통한 공교육의 신뢰를 증진시켰고 학부모교육, 교육시설확충과 교직원 인화조성등 지역교육발전에 헌신 노력한 공로를 높이 평가 받아 영광의 얼굴로 선정됐다.

사회봉사부문은 7명의 후보자가 추천되어 가장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김형호 자율방범연합대장에 돌아 갔다. 충남 자율방범연합대상임부대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형호씨는 지역방범순찰의 강화와 방범대사무실 개방, 운영했고 더불어 사는 사회구현을 위해 어려운 이웃들기에도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했고 특히 2001년 전국체전시에는 안내상황실을 설치 자원봉사에 앞장섰다.

지역개발부문의 대상자 김희복은 용화동에 거주하는 봉장, 바르게살기협의회의 회장, 주민자치위원장을 역임하면서 도덕성회복운동과 태극기 달기 운동전개, 깨끗한 도시 가꾸기, 청소년선도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했고 특히 용화동 예비군훈련장 이전, 경찰종합학교 진입로 개설등에 적극 협조하여 지역발전에 헌신 노력했음이 주요 업적으로 인정됐다.

한편 아산시민대상은 효행, 교육문화, 사회봉사, 지역개발과 체육부문을 5개 부문으로 나누어 정확한 현지조사와 공정한 심의를 거쳐 선발해 오고 있으나 선발부문의 폭에 제한을 받으므로 사회 각계각층에서 봉사하고 헌신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아루르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지방부문과 청소년부문, 애장부문을 시민대상을 8개부문으로 확대 하는 방안을 골자로 조례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에 들어 갔다.

## 추석연휴 의약품구입을 손쉽게 방역대책 및 당면약국 운영 시민불편 최소화

시는 민족의 최대명절인 추석연휴 기간중 병남환자나 의약품할 필요로 하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방역대책을 수립, 운영과 함께 당면약국도 운영토록 할 예정이며 원활한 환자진료가 이뤄질수 있도록 비상 진료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연휴가 시작되는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보건기관이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보건소는 비상근무를 병행 실시하고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근 남면세도 진료를 실시하며 진료 안내를 받고자 하는 시민은 보건소 전화(544-4000)나 1339응급환자정보 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비상방역태세를 강화하여 설사 및 식중독환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방역비상근무를 실시한다. 특히 설사환자 발생에 즉각을 근무자우며 발생시는 즉시 540-252(보건소 방역담당)으로 신고 해 올 것노 당부 했다.

한편 연휴 5일 전기간 동안 문을 여는 곳은 응급의료 기관으로 한사랑병원, 아산한국병원, 현대병원,

성애정신병원, 아산정신병원이며, 다나산부인과, 한일의원, 서울소아과외에서는 진료를 실시한다. 이와함께 ▲온천동-신성약국, 대성약국, 대동약국, 명신약국, 신하연약국, 종로5가약국, 우오나나약국 ▲도고-성심약국, ▲문포-모범약국, ▲신창-신창약국, 새김약국 ▲문포-성림약국 ▲인주-새조은약국도 연휴 전기간을 휴무 없이 운영한다.

### ■ 보건기관 진료일정

월 일	보건진료기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9월 25일(토)	송악, 도고, 신창	갈매, 산동, 덕지
9월 26일(일)	연지, 영인, 신창	동화, 염작, 근성, 화현
9월 27일(월)	음동, 인주	신화
9월 28일(화)	탕정	유곡, 동산, 관대
9월 29일(수)	시보건소, 배방, 둔포	중리, 쌍용, 신남, 신곡



칼럼

## 주차문제 우리모두 나서야 할 때이다

아산시 만큼 급속히 성장하고 발전가 능성이 큰 지역도 그리 많지않다. 품의 철도와 일렬아지는 고속철이 개통되었고 세계최대규모의 첨단산업단지가 건설중에 있으며 신도시개발도 순조롭게 진행중에 있다. 이러한 여파로 공동주택 인 아파트역시 우리지역 이곳저곳에 대규모로 건설되거나 계획 중에 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온양의 구시가지는 도시환경이 날로 악화되어가고 있음을 쉽게 느낄 수가 있다. 도시는 오래되어 활력이 없고 매우 혼잡하며 시민들은 인근지역으로 거주를 이전하여 상권도 점차 쇠퇴해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신도시 개발이 완료될 경우 보더 더 심각해지면서 구도심은 공동화로 슬럼화가 될지도 모른다는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로 설득력을 얻고 있다.

### ■ 온양 구시가지는 심각한 주차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러한 원인중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주차장 확보이다. 주차장제가 비단 아산시에서 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다. 여느 지방의 중소도시든 안고 있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가 바로 주차장 확보문제이다. 아산시 통계연보에는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에 비해 주차장 확보비율은 6%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파악되지 못한 주차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2만대 이상의 차들이 주차장이 아닌 골목길이나 도로 등에 무단으로 주차되어 있는 것이다. 동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쓰레기처리시설(16.0%) 다음으로 주차시설(13.7%)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지역의 주차문제가 얼마나 심각함을 알 수 있다. 굳이 통계상의 수치나 설문조사결과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시내를 조금만 둘러보아도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다. 도로의 양측변은 물론이고 골목골목 주차장이 된지 오래다.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새로이 도로를 건설하거나 확장 하면 공사가 끝나기 무섭게 주차장으로 변해버리고 만다. 주택지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서 내 집 앞이라도 조금만 늦어지면 주차하지 못하여 별의별 묘안을 짜내어 집 앞에 구조물을 세워놓거나 보초를 서기도 한다.

### ■ 주차문제가 단순히 건물하나의 문제 가 아니다

최근 우리지역에는 대규모 건축물들의 건축허가가 신청되고 있다. 법정주차대수를 갖추었다고 허가를 내주어야 할 만한 것처럼 인식되고 또 법에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시가 요구하는 것이 부담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다. 물론 건물 건축계획에는 법에서 요구하는 주차시설을 충족하고 있기는 하다. 그렇다면 건물건축으로 예상되는 여러가지 폐해가 눈에 보이는데 법적인 요건만 갖추었다고 해서 허가를 쉽게 내어줄 수 있겠는가? 법정주차대수는 최소한의 주차대수를 예상하여 정하여 된 것이다. 지역에 따라 여건에 따라 실제 필요한 주차대수는 모두 다르다. 요즘은 한집에 차 한대는 옛말이 됐다. 그러하다면 두 가구당 1대도 안되는 주차장으로는 도저히 주차하기 힘들게 될 것이라는 걱정은 불 보듯 뻔한 일이 아닌가? 나만 대충 허가내고 집을 짓고 분양하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모든 것은 다시 우리 모두에게로 돌아온다는 생각을 먼저 가져야 한

다.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좁은 도로를 넓히거나 다시내고,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만들 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 ■ 아산시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인허가 처리가 법률에 특별한 저속사 회이 없고 시의 방지에 도움이 되며 시민 및 주변지역에 끼치는 영향이 적다면 신속히 허가를 내 주어야 한다. 다만,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시민 불편을 고려하여 건물에 맞는 주차공간 등 제반여건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유도도 하는 것 역시 시가 해야 할 일이다. 이와함께 앞으로 추진되는 대규모 건물에 대해서도 아름다운 건축물이 될수 있도록 조례도 개정하고, 설계전문가는 물론 사업주들이 지역의 미래를 생각하며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일과 함께 이해의 폭도 넓혀나가도록 해야 한다. 시민들 역시 주민의식을 가지고 자기고정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걱정해야 할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아지면 쾌적한 온양 7도심의 활성화로 이어지고 나아가 아산시 전체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고 싶고, 살기좋은 도시! 우리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산시 여성교통 포럼 차영재)

## 제89회 아산시의회(의장 이한욱) 임시회 9월 10일 개최

9월 17일까지 8일간의 의사 일정을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아산시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아산시인구증가등을위한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아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아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아산시수도시설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의를 하였다.

또한, 각 실과 및 사업소로부터 2004년도 8월 말까지의 업무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업무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아 행정에 대한 감시와 감독, 그리고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였다.



▲ 제89회 아산시의회임시회본회의

### 조례의 주요 제·개정 내용

#### ■ 아산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보류)

친환경농산물 등 국내산 및 지역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우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식생활 개선을 도모하고 학부모의 참여기회 확대와 직영급식 확대를 위한 시설비 및 개선비, 급식비 지원을 목적으로 아산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를 상정하였으나 충남도 및 도내 타시군의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고,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지원에 앞서 국가 및 도의 예산지원대책을 강구코자 보류함.

#### ■ 아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주민자치과)의 승인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처리지침에 의거 존속기한을 2005. 6. 30까지로 연장,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총무위원회



▲ 사회건설위원회

#### ■ 아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혁신·분권 담당기구 설치지침에 의거 현재 정원 중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정보화추진인력을 2007. 6. 30일까지로 연장하며 시한 만료와 동시에 상시정원으로 전환하여 활용코자 함.

#### ■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원안가결)

국·공유재산 교환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찰교육기관 통합 이전 부지 확보사업 추진은 총4차에 걸쳐 약 278억원의 재산을 교환하였고, 지금까지 교환재산 전체를 보상금 수령 및 총328억원에 매각하였으며, 잔여분 중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번 국·공유재산을 교환·매각코자 하는 내용임.

#### ■ 아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부결)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및운용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였으나 시 출연금 예산확보와 문화예술단체 활동에 의한 수익금 등의 기금조성으로 110억 목표액 조성에 곤란한 것으로 예상되어 사전 충분한 기금조성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부결됨.

#### ■ 아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가결)

운영 조제가 위헌수 제안은 물론 특정 인사를 제한, 자기기능을 약화시키고 있어 이의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 기능을 강화하기위함.

위원회 위원은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개정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토록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자기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 아산시인구증가등을위한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가결)

관내에 주민등록전입시 대학생에 한하여 문화상품권을 제공하던 것을 기업체 기숙사 입주 직원에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범위를 상품권으로 한정하던 것을 『상품권 등』로 수정하고, 지원 금액을 대학생이 전입신고서 지급하는 30,000원을 80,000원으로, 기업체 기숙사 입주직원에게 지급하는 2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인상하여 주민등록 미전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전입통기를 부여함으로써 아산시의 인구증가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함.

#### ■ 아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생활체육의 수요증가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거나 예산을 지원하여 설치하는 운동시설을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생활체육의 저변확대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 아산시부설공사방직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가결)

아산시건설공사의 주민명예감독관 운영에 관한 지침과 아산시부설공사방직조례를 일관성 있게 개정하여 공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 ▷ 주요골자

- 명예감독관 운영에 관하여 아산시건설공사의주민명예감독관운영에관한지침에 따르도록 함
- 1천만원이상 사업 추진시 공사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함
- 2억원이상 대형 공사에 대해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토록 함
- 2억원이상 공사에 대하여 공사준공관을 설치토록 하여 공사실명제를 통한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함.

#### ■ 아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하수도 사용요율을 30%인상하고 하수도 업종체계 및 누진체계를 조정하는 등 사용료에 대한 현실화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및 하수관거정비사업등 하수도 시설투자 사업재원 확충을 통해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 아산시수도시설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수정가결)

수도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원인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한편 손괴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관련 규정을 마련 함.

#### ■ 아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읍·면·동간 이원화 되어있는 상수도 시설 부담금을 단일화하여 행정성을 유지하고 지방상수도 요금체계 개선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함.

### 교통행정서비스헌장

우리 아산시 교통업무 담당공무원은 모든 시민에게 신속하고 안전한 교통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 모든 민원을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여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1. 쾌적하고 편안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대중교통의편의증진을 위하여 교통시설을 등을 정비하고 주차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고객에게 잘못되 업무처리로 불만족이나 불편을 드린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고 응분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1. 교통행정에 대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서미스 개신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 표준을 설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새내기 공무원, 지역도 배우며 봉사행정 현장으로



▲ 삼성SDI현장견학후

시가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는 공직자의 전문성 배양에 새내기 공무원도 예외로 하지는 않았다.

시는 36명의 신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공직자로서의 자세, 업무연찬, 특강(정신교육)에 이어 외암민속마을, 탕정TC, 현대자동차, 열인산유암립등을 견학 하므로써 우리 교정의 역사와 자연, 산업발전등을 바로 알고 체험하여 봉사행정의 현

장에 활용토록 했다.

이번 현장견학은 시가 충남에서는 처음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선배공무원들의 현장행정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생생한 목소리를 전수 받도록 운영한 신규자 교육이 공직자로서 첫발을 디딘 새내기 공무원들에게 봉사행정의 현장에서 시민들과 접할 때 많은 도움이 된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한편 시는 공직자의 전문성 배양을 위해 건축직, 토목직, 사회복지직 등의 직능별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수갑발표, 제안제도 발표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하며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 최상의 행정서비스로 시민에게 봉사토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 자전거로 아삭 즐기기

시는 심각한 도시교통 환경문제를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근골격 약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기로 하고 자전거 이용시설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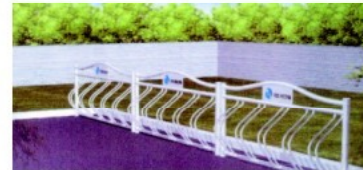
우선 자전거 이용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학생층의 이용 편의를 도모해 줌으로써 자전거이용층을 범시민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위해 시는 자전거를 안전하고 질서있게 보관할 수 있는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올해 안에 관내 ▲고등학교 3개교, ▲중학교 6개교, ▲초등학교 6개교와 ▲신정호국민관광단지 1개소등 16개소에 375대분의 헬스형 보관대를 설치한다.

또한 연차적인 계획아래 자전거도로 확충과 함께 학교외에도 아파트, 공원

등 다중집합장소와 자전거이용자가 많은 곳을 대상으로 보관대 설치 확대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자전거 타기는 근거리 이동시 이용하기 편리하고 복잡한 도시의 환경오염과 주차난을 해소하면서 운동의 효과도 누릴 수 있어



▲ 헬스형 자전거 보관대

선진국에서는 녹색교통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자전거운동이란? - (자전거운동연합 홈페이지에서 발췌)

#### ■ 건강과 함께 기분전환하는 자전거운동의 효과

- 심폐기능 향상, 하체발달, 비만치료효과

#### ■ 자전거 운동 방법

- 충분한 준비운동이 필요하다
- 10분 내외의 짧은 시간에서 점차 늘려 나가도록 노력
- 페달을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돌리면서 시간과 거리를 점차 늘려 나간다
- 같은 시간동안 운동량은 달리기와 걷기에 비해 근육

자극량이 적음을 참고

#### ■ 자전거운동 유의사항

- 부상방지를 위해 헬멧과 보호대 착용 필수
- 안정의 높이를 조절하여 편안한 자세로 운동
- 페달을 밟는 발이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편향되지 않도록
- 신발은 바닥이 딱딱하고 굴고투 힘을 분산할 수 있는 것 선택



### 사진으로 보는 이산뉴스



▲ 밤만 좋은 아사랴우 쌀이요

## 기초생활수급자 지붕도 수리하고 일자리도 제공하고

1가구당 120만원 집수선비 지원, 시공수리 선호



▲ 저소득층 가정 건물 외벽도색

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 집수리 사업이 9월까지 162가구의 수리를 완료, 전체 목표(180가구)의 90% 진척을 보이면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자가 및 전세부담임차가구를 대상으로 1가구당 120만원을 지원하며, 3년을 주기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204백만원이 투자되고 가구별로 지원 받은 집수리 금액은 매월 지급되는 주거급여의 일부(주거급여

의 90%)를 전액하여 충당하게 된다

또한 이 사업내용은 지붕보수, 전기배선, 도배, 싱크대 및 보일러, 화장실변기 교체, 방수리, 등 지원 범위 내에서 거주자의 주거여건에 따라 구조위험이 있는 부분을 우선하여 수급자가 원하는 생활시설 등을 고쳐 줌으로써 기초수급자들로부터 많은 고마움을 불러 일으키면서 실질적인 복지정책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좋은 시책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도배, 지붕수리 등 종합적인 집수리 인력이나 장비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인력으로 구성된 자활후원기관을 이용함으로써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효과도 함께 거뒀다.



▲ 한가위 손님맞이, 도로변 화단 단장



▲ 자율방범대는 수호천사



▲ 풍란숯부작 교육 받았어요

어떤 일에도 항상 최선의 길, 최상의 힘을 다해야 한다. <대학>

# 인구 20만시대, 밝은 희망의 아산이 보인다

8월말 195,000여명 앞으로 5,000명도 안 남았다

시가 꾸준히 추진해온 인구 20만명 달성에 한 걸음 다가 서며 9월과 10월 은행정력을 집중해 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2004년 하반기 주민등록 일제장비와 병행하여 우리시에 거주하면서 주소를 옮기지 않은 세대를 전수 조사하여 집중적인 전입권고를 유도하기로 하고 전공무원이 지역별로 분담해 전입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와함께 선문대학교, 순천향대학교등 학교기숙사와 삼성전자 만도위니아등 대형 기업체가 있는 곳에는 학생과 직원의 아산시 전입을 유도키로하고 전입시 편의 도모를 위해 이동민원실을 운영하는 한편 시장서한문 발송, 간담회도 실시해 오고있다.

또한 타시·군·구에서 우리시로 전입하는 일반 시민에게는 아산시민이 됨을 축하

하며 쓰레기봉투(3명이상 18,000원, 2명이상 12,000원상당)를 대학생에게는 문화상품권(80,000원상당) 기업체 기숙사 직원에게는 50,000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인구 20만명이 되면 우리시의 위상이 달라지며 인구수에 따라 규모가 달라지는 교부세를 감안하면 재정규모의 대폭적인 확대로 지방산업발전과 함께 복지사업 확대를 가능케 하고 교육과 치안, 행정등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거주지와 주민등록을 일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아산시민으로 자부심과 긍지를 지니면서 소속감을 가지고 지역발전에 관심을 갖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가 주민등록 전입임을 시민들이 공감하도록 분위기 확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 이동민원실(탕정면-선문대학교)운영

## 국도비 확보로 지역개발 박차

100년후의 아산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자

아산시 공무원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졌다. 2005년사업 및 연차적 사업에 국비와 도비를 최대한 확보해 지역개발에 최선을 다하도록 9월 월례모임에서 공직자의 헌신 노력하는 자세를 강력히 요구하는 강희복 아산시장의 불

호령이 떨어졌다.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자세하고 정확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설득력 있게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해 나가면서 필요하다면 국·도비 담당부서에 직접 설명자료를 배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

처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직원들을 독려했다.

특히 지역경제가 힘들고 시민들이 어려울 때 돌과구를 마련하고 곤경에 빠진 시민들을 이끌어 희망이라는 배 위로 끌어 올리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

이며 국가 최후의 보루를 공무원이라는 생각으로 아산의 100년 미래를 설계하러 함께 뛰고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각 실과 사업소에서는 2005년도 국도비 확보를 겨냥한 설명 자료를 만들고 설득할 묘안을 마련하느라 머리를 짜내고 있어 예산반영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 ‘우리지역 특산품’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시는 민속 최대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우리시 농특산품을 전국에 알리는 홍보전선에 나서기로 하고 ‘아산우수농특산물’ 홍보책자를 254개 전국지방자치단체에 발송했다.

홍보책자에는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명품으로 브랜드화 돼

있는 아산팍은 쌀과 한가위 필요용품도 실려 있다.

또한 사이버 직거래 장터 홈페이지(www.asj.net)를 운영하고 있어 인터넷을 이용해 쌀, 천년초, 꿀, 전통장류, 포도즙, 신령버섯, 배 등 원하는 물품을 직거래할 수도 있다.

특히 작년에 이어 삼성전

자 사업소내에 농특산품직

거래센터를 설치해 기업직

원들에게 농특산품을 현지

구입을 가능케하고 농가들

은 소비자와의 직거래를 통

한 소득증대 및 판로 제공으

로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호평을 받을 것으로 크게 기

대한다.



### ■ 아산우수농특산물

아산팍은 쌀, 천년초, 탕정포도, 아산배, 사슴, 전통장류, 민속떡, 신령버섯, 폭파

이름의 도리에 손꼽히는 자는 흥하고 기억하는 자는 멀한다. <맹자>

## 주부명예기자

## 너무나 좋았던 한여름밤의 콘서트

온양4동 주부명예기자 명 경 옥

몇해전 부터 신정호 관광지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름밤의 콘서트를 하고있다. 보고싶었던 영화도 상영하고 다채로운 음악회도 열린다.

잠시동안 이나나 무더위를 잊고 여름밤을 보내기에는 이보다 좋을 수가 없다.

마냥 지루하기만한 여름에 아산시민이면 누구라도 한번쯤은 관객으로 참여해서 즐겼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는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가보지 못하고 8월 마지막주에 '아산시민 20만명달성하기'란 주제를 가지고 열린 행사에 가보게 되었다.

행사에 입박해서 도착하고 보니 주차장은 이미 만원이고 진입도로에도 차가 줄지어 서있었다. 행사장 입구에서 경찰차들이 차량을 통제하고 있어서 그리 복잡하지는 않았다. 겨우 주차를 하고 무대 앞으로 다가가기 막 행사가 시작하고 있었다.

이미 놓여진 의자는 빈의자 하나 없이 사람들로 꽉 차있고 서서 보고 있노라니 누군가 못자리를 갖다 주어 앉아서 볼 수 있게 되었다.

행사는 여러가지 장르로 참 다채롭게 구성되어 있었다.

청소녀들이 좋아하는 댄스, 어른들이 좋아하는는 남도민요, 그리고 시립합창단의 아름다운 하모니, 흥겨운 스포츠댄스, 마지막으로 실버밴드의 연주곡까지 두루두루 여러장르로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산시민이라는 것만으로 이런 다채로운 행사를 무료로 부담없이 관람할 수 있다는 것이 뿌듯했다.

다만, 한가지 유감스러운 것이 있다면 무대 밑에서 보는 관객들의 자세였다.

모두들 가쪽단위로 나와서 관람을 하는데 여기저기서 눈발을 찌뿌리게 하는 광경이 종종 있었다.

주위사람은 아담함 하지 않고 시끄럽게 떠들며 뛰어 다니는 어린이, 그것을 보고도 말리지 않는 부모들, 열심히 주위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핸드폰 통화를 하는 학생들, 의자가 없어 서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 편하자고 의자를 두 개씩 갖다 놓고 다리를 뻗고 앉아있는 사람, 성 말 나중에는 내 옆에 남자가아아 때문에 짜증이 날 지경이었는데 그 부모는 끝까지 모른척 했다.

무대에 서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최선의 최상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연습에 연습을 하고 무대에 서는데 가만히 앉아서 보는 관객들은 감상할 줄 모르고 놀이터에 온 것 처럼 떠들어 대는지.

관객들이 보는 자세가 아름다워야 무대에서 선 사람들도 더 신이 나서, 힘이나서 잘할려고 하고 다음에도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려 할텐데 아쉬웠다.

좋은 공연은 무대에 서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객이 만드는 것이다. 같이 호흡해 주고 감상하고 열렬한 박수를 보내 줄 관객이 더욱 빛나고 다음 공연도 더욱 질이 향상된 좋은 공연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이다.

올 여름 한번밖에 보지 못한 행사지만 너무 좋았고 내년에도 공연이 계속된다면 더욱 많이 관람해야겠다. 더욱 질 좋은 공연과 발전된 관객들의 자세를 기대하면서...

## 특별한 가을 운동회를 꿈꾸며...

온양5동 주부명예기자 황 유 순

이맘때면 초등학교에선 가을 운동회가 앞다투어 열리곤 한다.

운동회의 본뜻은 평소 운동·유희등을 부모와 일반인들에게 연출하여 자신의 성장모습을 보이고 활동의 실재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또한 이를 통해서 단체의 협동심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매년 한번씩 갖는 의미있는 축제다.

예전에 작은 마을단위의 운동회는 가족은 물론 마을 사람들이 모여 즐기는 것이어서 마을 축제나 다름 없었다. 하지만 사회가 도시화하고 액가죽과 퍼머닝 그런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시대에 따라 변화되고 있는 현상들에 따라 변화하는 것은 당연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쉬움도 없지 않다. 우리고장 아산의 모습도 예전의 행사를 답습하거나 초등학교 몇몇 곳은 운동장이 비좁아 행사 치루기도 버거운 실정이다. 그렇다 보니 늘 치루어진 행사쯤으로 가볍게 생각되는 연례행사처럼 돼 버린 것도 있다.

게다가 어디서나 발견되는 조잡한 물건을 파는 상인(그들에게는 생계의 수단이었지만)들은 운동회의 본질을 벗어나게 하는 점도 있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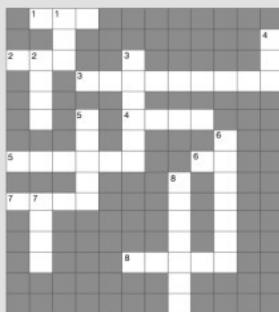
아무튼 예전의 아련한 추억의 운동회로는 돌아가지 못할 지라도 학교에이 여건에 맞게 현실에 맞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학생수가 얼마 되지 않는 면단위의 학교들은 마을축제의 모습으로 규모가 큰 학교는 아이들이 즐기는 신나는 축제로 꾸며졌으면 하는 바람을 조심스레 가져 본다.



## 훈훈한 정과 사랑이 넘쳐나는 한가위

- 배방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이두영) 무연고 분묘 별초봉사
- 대한적십자사봉사회아산시지부협의회(회장 장금란) 내고장내마을대청소 봉사
- 삼포건설(대표 강준모) 온양1동 기초생활수급자 임대보증금 일천만원 전달
- 삼강면 백합지인봉사회(회장 조영구) 무연고 노인에게 담요등 위문품 전달
- 새마을지도자 및 지역주민 도로변 꽃길조성, 무연고 분묘 별초봉사
- 탕정면 새마을부녀회(회장 김점숙) 이웃사랑 김장담가꾸기용 채소 식재
- 도고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김진삼) 명필맛이 가로변 청소 및 무연고 분묘별초
- (주)신도리코(대표 신낙훈) 불우이웃돕기 백미 200포, 성금 일백만원 기탁
- 단장면 간남초보신탄집(대표 간남희) 불우이웃돕기 백미 100포 전달
- 아산시여성자율방범대(대표 김명숙) 온양3동 무의탁노인에게 김치(시가 500원)전달
- 온양로타리(회장 윤달석) 저소득세대에 성금 이백만원 전달

## 날알맞추기



## 〈가로열쇠〉

1. 시민들이 질서와 화합된 모습으로 경기장에 들어오면 받는 상
2. 입장하는 시민들 노인 참석률이 높아 받을 수 있는 상
3. 요령, 지적개발, 체육등 3개분야의 포범 시민을 표창
4. 이소일 들으면 흥이 절로 나오. 복,장구, 풍과리, 장의 하모니
5. 지역발전엔 현저한 공로가 있는 시민에게 수상하는 상
6. 현인의 성대장울 증으로 맞춰 일정시간 안에 많은 사람을 탈락시키는 경기
7. 협동심을 발휘해야 하는 경기, 긴줄을 이용해 발과 마음을 맞춘다
8. 전시민이 참여하여 일정기간을 달려 보는 경기

## 〈세로열쇠〉

1. 경기성적도 좋아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팀이 수상
2. 어른들의 숨을 곳에서 봉사활동을 펼쳐 시민들의 칭찬을 받는 사람에게 주조
3. 지역의 숨을 곳에서 봉사활동을 펼쳐 시민들의 칭찬을 받는 사람에게 주조
4. 체육대회 본래의 취지에 맞게 시민의 화합됨에 따라 판가를 내는 난재성
5. 6명이 한마음으로 보조기구를 이용해 빠른시간에 반환점을 돌아 오는 경기
6. 초등학교때 많이 해본 경기. 터지면 축하 메시지도 나오죠
7. 힘을 모아 열차 명차 줄을 당겨야 이기는 경기
8. 달려가서 우유를 한잔 마시고 다시 달려 볼까요?



## 2004 하반기 민방위교육 일정

교육일시	교육 대상		교육 장소	교육일시	교육 대상		교육 장소		
	지 역	인원			지 역	인원			
10월 5일 (화)	오현	향민, 문포, 온양1	317	국민생활관 대강당	11월 11일 (목)	오현	직정대	360	국민생활관 대강당
10월 20일 (수)	도부	해동방문대현	70	하산초등학교	10월 14일 (목)	오현	하산초등학교(1부)	300	후(2부)도(2부) 24강
10월 29일 (금)	오현	문포, 신정	272	국민생활관 대강당	10월 20일 (수)	오현	현대자동차(주)	430	현대자동차 교육장
11월 1일 (일)	오현	영인, 신정	435	국민생활관 대강당	11월 15일 (월)	오현	제1차 보충교육	별도계획	
11월 2일 (화)	오현	도고, 온양2, 온양3	379	국민생활관 대강당	11월 22일 (월)	오현	제1차 보충교육	별도계획	
11월 6일 (일)	오현	문포4	422	국민생활관 대강당	11월 29일 (일)	오현	제1차 보충교육	별도계획	
11월 9일 (화)	오현	안주, 온양5	364	국민생활관 대강당	11월 29일 (일)	오현	제2차 보충교육	별도계획	
11월 10일 (수)	오현	온양6	294	국민생활관 대강당	11월 30일 (화)	오현	제2차 보충교육	별도계획	

□ 교육시간 : 오전반(09:00-13:00) 오후반(14:00-18:00) → 교육시간 10분전까지 등록완료  
※ 보충교육은 1시간 연강교육

도를 잃어버리면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비록 천천히지라도 멀리하여 가까이하지 않는다. <단아>



## 아산시민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안 내 · 알 림



###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이름 공모

아산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명품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판로인정을 위한 대표 브랜드 이름을 공모합니다.

- 공 모 명 :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이름 공모
- 응모기간 : 2004. 9.20 ~ 2004. 10. 14.(우편접수분은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 응모방법

- ▶ 홈페이지접수 : 아산시 홈페이지(www.asan.chungnam.kr)에서 응모양식 다운로드 후 e-mail로 접수 (e-mail 주소 kimmy05@san.com)

- ▶ 우편접수 : 충남 아산시 온천동 1626 아산시청 농특산물유통특성 담당자 앞 ※ 응모편수는 제한 없음

#### □ 응모작 내용

- ▶ 소비자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어 소비자의 구매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이름
- ▶ 아산지역을 대표 하는 이름
- ▶ 글자수는 되도록 적게 하고 듣기 쉬운 이름
- ▶ 기억하기 쉽고 다른 브랜드와 색다른 이름
- ▶ 개성있고 차별화된 이름, 광고효과가 있고 잘 팔릴 수 있는 이름
- 선정방법 : 아산시농특산물 공동브랜드개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선정
- 결과발표 : 2004년 11월중 아산시홈페이지에 발표(수상자 개별 통지)

### 2004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 입제신청 조사

- 조사기간 : 2004. 9. 6 ~ 10. 15(40일간)
- 신청대상 :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
- 구비서류 : 신청서(읍·면·동사무소 비치), 소득관련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04 원/월	368,226	609,842	838,796	1,055,090	1,199,637	1,353,680

※ 차상위계층 기준 : 최저생계비(상기 표)의 120%기준

#### □ 지원내용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생계비(차등지급), 주거비, 의료급여, 자활사업참여, 경로연금, 보육료지원, 위기가정지원, 정부양육 합의지원 등
- ▶ 차상위계층 : 부분급여지원(자활급여-사회적일자리), 정부양육참여 지원(예정), 경로연금, 차상위의료급여(만성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 등)
- 긴급 생계급여 지원
- ▶ 저소득층의 사망, 질병 또는 병역불명, 부 또는 모의 가출, 갑자기 재산·소득상의 손실발생, 기타 거주지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추석연휴기간 가스안전관리 요령

- 고향으로 떠나기 전에는
  - 가스렌지 측은 물론 중간밸브까지 완전히 잠급시다.
  - LPG사용 가정은 가스통에 부착된 밸브까지 잠그고 가스통은 안전한 곳에 체인 등으로 고정시켜야 하며, 도시가스사용 가정은 계량기에 부착된 메인밸브까지 잠궈야 합니다.
- 휴대용 가스렌지를 사용할 때에는
  - 음식을 조리할 때 너무 큰 냄비를 사용하면 복사열로 부탄렌지 폭발할 수 있으므로 냄비가 너무 크지 않은지, 열이 부탄렌지에 전달되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 음식을 조리한 후에는 반드시 부탄렌지를 분리시켜 보관하고, 다 쓴 부탄렌지는 구멍을 뚫어 버려야 합니다.
- 쉽게 알아차리는
  - 충분히 환기를 시킨 후 가스시설의 연결부분을 점검액(비눗물)으로 점검하고 나서 사용해야 합니다.
  - 만약, 이상이 발견되면 도시가스 지역 관리소나 LPG가스 판매점에 연락하여 전문가의 진단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합니다.

### 무료굴밀도 검진안내

- ▶ 굴다공중 검사란 굴의 화학적 조성에는 변화가 없고 단위 용적내 굴량의 감소를 초래하여 경미한 충격에도 쉽게 굴절을 일으키는 굴다공중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 검진기간 : 2004. 12. 30일까지
- 검진대상 : 만 40세이상 여성(주민등록상)
- 준비물 : 주민등록증
- 검진방법 : 접수(1층민원실 무료 굴밀도측정서 작성)→ 측정(2층 굴밀도 측정실)→건강검진실(전문가의 상담)
- 문의전화 : 보건소 가정간호담당(☎540-2541)

### 온양민속박물관 한가위 놀이잔치

- 행사일시 : 2004. 9.28 ~ 9.29
- 행사장소 : 온양민속박물관 내 놀이마당
- 참가대상 : 남녀노소(참가비는 없음)
- 행사내용 : 제기차기(경쟁부문), 윷놀이, 널뛰기, 그네뛰기
- 기타문의 : 온양민속박물관(전화 542-6001)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감감 안내

- 농·어업인 건강 대상 및 범위
- ▶ 구 및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거주 농·어업인
- ▶ 시의 동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제외) 및 준농어촌지역(광역시·특별시 중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 거주 농·어업인
- ▶ 보험료의 30% 감감(농어촌경감 : 22%, 농림부 추가 지원 감감 0%)
- 농·어업인 건강 적용시기 : 신청일 다음달부터
- 농·어업인 확인 및 감감신청 절차
- ▶ 농·어업인 확인서로 건강신청 ⇒ 농·어업인 확인서로 이(통)장 확인 ⇒ 읍·면·동사무소 제출 ⇒ 관할 건강보험공단(지사) 건강내역 통보
- ※ 『농어업인확인서』는 읍·면·동사무소 및 공단지사 비치되어있습니다.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아산지사 (☎544-1497)

### 농기계 순회수리지도 (15개 마을)

일 자	순 회 마 을
10월 4일	둔포 1
10월 5일	영인 3
10월 7일	인주 관암1
10월 8일	신장 대흥3
10월 11일	도고 덕암
10월 12일	신창 가내1
10월 14일	온양6 박곡1
10월 15일	영치 방현2
10월 18일	송악 송학2
10월 19일	배방 구명1
10월 21일	당정 갈산2
10월 22일	음봉 송촌
10월 25일	둔포 2
10월 26일	영인 역1
10월 28일	인주 냉정

### 전염병 예방으로 건강한 가을하기

발병하기 쉬운 질병	증 상	전파경로	예 방 법
유행성출혈열	· 임상적으로 초기에는 감기와 비슷 · 발열기, 저열일기, 감노기, 이노기, 회복기의 단계를 거침	한탄바이러스, 들쥐, 집쥐	· 유행지역의 산이나 풀밭을 가지 않는다 · 들쥐의 배설물에 접촉을 피한다 · 잔디위에 침구나 옷을 말리지 않는다 · 신중후군출혈열 의심시 조기 치료를 받는다
쯔쯔가무시증	· 감염후 10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친다 · 1cm크기의 피부 반점과 기관지염, 폐렴, 심근염, 수막염 등 · 두통, 발열, 오한, 발진, 근육통과 피부발진이 일어날 수도 있음	털진드기 유충	· 유행지역의 관목 숲에 가지 않도록 주의 · 들쥐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 · 논이나 밭에서 일할 때 긴 옷을 입는다 · 야외 활동후 귀가시에는 옷에 묻은 먼지를 털고 목욕을 한다 · 증상이 의심되면 즉시 치료를 받는다
렙토스피라증	· 갑작스런 발열과 두통, 오한, 근육통, 눈 충혈 등 · 감기몸살과 비슷한 증세와 황달 또는 노 갈색 · 초기증세 2-3일경과후 중독, 기침, 각혈, 호흡곤란 등	들쥐, 집쥐, 족제비	· 작업시 손, 발등의 상처 유무점검하고 반드시 보호장구(장갑, 장화 등)를 착용 · 가능한 한 농경지나 구이 등에 소변을 다치지 않도록 주의 · 추수하는 가금적 물을 빼고 마른 뒤 작업 · 비슷한 증세가 있으면 의사 진료 받는다 · 들쥐, 족제비 감염후 동물 연애도 4주

강가에 이트 물고기를 부려먹는 것보다 돌아와서 물고기를 잡을 그물을 만드는 것이 낫다. <회남자>

## 다채로운 문화예술제, 취향 따라 문화체험



### ■ 짚과 풀이 만나 문화제를 만들었다.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은 외암민속마을 일원에서 짚풀문화제가 열린다.

올해로 5번째가 되는 짚풀문화제는 외암민속마을의 역사와 전통을 널리 알리고 자연과 어우러진 환경에서 전통예술 및 민속놀이의 재현 등을 통해 전통민속을 보존하고 체험 할 수 있는 우리 고장의 민속축제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또한 짚과 풀을 주제로 하면서 전통혼례 등 민속재현 행사와 이엉여기, 띠메치기 등 체험행사로 꾸며져 한국의 토속적인 멋과 전통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유도, 우리것이 소중한을 재발견하고 지속적인 문화유산 발굴, 보존 전승토록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예년과 달리 행사의 재원을 복권기금에서 지원 받으면서 보다 내실있고 다양한 문화축제로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됐다.

이번 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은 ▲민속재현행사(전통



▲ 외암민속마을을 짚풀문화제

혼례, 조선잡타름), ▲전시체험행사(짚풀공예전시, 다림이실), ▲대회행사(삼강대회, 짚풀공예대회), ▲전통민속초청행사(대북공연, 줄타기공연, 마당놀이)가 준비돼 있어 볼거리 구경과 먹거리 즐기, 함께 참여 하기가 가능하다.

### ■ 맹정승축제와 새롭게 태어난 은행나무길 축제

청백리 고분 명사성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고 숭고한 나라사랑 마음을 이어 받고자 맹정승 고택 일원에서는 맹정승축제가 열린다.

맹정승은 이순신장군과 함께 우리지역의 대표적 큰 인물로 찬란한 생활과 우국충정, 깊은 학구열로 만인의 추앙을 받는 재상으로 배방면 중리에 고택이 보존돼 있어 그분의 숨결을 한층 가까이서 느낄 수 있다.

또한 원년을 맞는 은행나무길 축제는 현충사 진입로의 은행나무가 노란잎으로 물들어 갈 즈음 곡교천과 어우러져 푸른 물결과 어우러져 인대 장파를 이루는 우리지역의 명소를 이를 심플살려 축제화 한다.

새롭고 다양한 이벤트와 특색있는 축제 장소에 주제가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 될 것으로 보여 또하나의 볼거리가 아산에 태어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곡교천변의 유유히 흐르는 물결을 따라 자전거를 즐길 수도 있고 현대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인라인 스케이트로 축제장을 가로 지를

수도 있으며 제방위에 지천으로 내려 앉은 노란은행잎을 밟으며 걸어 보면 가을의 정취가 손안에 잡힐 것 같은 그림같은 축제장이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을 사로잡기 충분하다.

신선한 바람과 함께 찾아온 우리지역의 문화예술축제마당에 취향에 맞는 장르를 선택해 일상을 잊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예술작품들을 만나 볼적이다. 버버릿길을 세우고

심신을 가다듬어 보다 나은 내일을 그려가면서 마냥 설교만 읽은 그대.....

### ■ 연륜만큼이나 성숙한 설화예술제

아산시민 20만들과를 기원하면서 올해 16회를 맞는 설화에



설화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아산지부 주체로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시내 전역에서 다양한 장르의 수준높은 예술활동을 전개, 시민들의 문화 예술욕구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예술지부는 각 협회별로 전시회와 작품발표회, 공연등을 개최하여 지역예술인들이 그동안 연마한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우리지역의 문화수준을 널리 알리면서 작품활동을 통한 시민과의 예술공간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시내 전역에서 펼쳐지는 설화예술제에 시민들의 관심이 해를 거듭 할수록 높아지고 있어 보다 성숙되고 수준 높은 예술제를 준비하고 만들어 나가도록 아산시가 지향하는 문화도시의 정신적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크다.

### ■ 설화예술제 프로그램

월 일	행 사 내 용	장 소
10월 7일	• 제 19회 한국미술대전(부선) / 14.10.11일까지 3일간, 4점작(가운데)	문화체육
10월 8일	• 한국사진작가협회 아산지부회원전 / 15.00 (10월)까지 3일간, 4점작(가운데)	국립생물관
10월 9일	• 제16회설화예술제 개막식 / 16.00 (음곡공연, 시낭송, 무용, 국악공연)	국립생물관
10월 9일	• 제30회 국악·아산·경기공연 / 18.00 (전통놀이-아름다운 사인)	국립생물관
10월 9일	• 제12회 아산·국악대잔치 / 15.00 (비나리, 사물놀이, 남도민요 등 공연)	국립생물관
10월 9일	• '설화문학'제24호 발간 및 출판기념회 / 16.30 (테마특집)	국립생물관
10월 10일	• 제14회 화원음악회 / 19.00 (관현악 합주 등 음악공연)	국립생물관
10월 10일	• 제 14회 정기무용발표회 / 18.00 (백조의 호수의 2작품)	국립생물관

## 시원한 바람 솔밭길 거닐며 명화한편 감상해 볼까?



▲ 외암리 민속마을 솔밭길

가을 날씨는 청명하기로 1년중의 으뜸이라 하늘도 맑고 불어오는 바람도 싱그럽기만 하다. 한가위 연휴도 길어 가족과 함께 단란하면서도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어릴적 생각하며 소중기는 마음으로 가까운 관광명소를 찾아볼 만하다.

이번호에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돌담길 외암민속마을과 봉곡사 솔나무 길, 휴식과 함께 우리고장의 예술인을 만날 수 있는 달림미술관을 찾아가 보자.

외암민속마을은 조선시대의 생활모습

이 마을 전체에 배어 있다.

한가위는 입구의 경에서부터 굽이굽이 집집마다의 정겨운 돌담길, 송화대에 이르러 안채와 마당채를 구경할 수 있고 구들방, 마루, 벽에 걸린 삼대기에서 조선인들이 숨겨진 진하게 전해온다.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이만한 정원을 만나보기도 어려운 견제고택,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정원이

한쪽의 그림처럼 자리잡고 있다. 정원과 지붕처마의 어우러짐, 눈을 지그시 감으면 조선시대 양반의 여유로운 산책모습이 그대로 눈앞에 펼쳐지는 것만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외암민속마을엔 여는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1.5km나 되는 돌담길(넙이는 길이다)과 함께 짙짙한 흐르는 물길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설화에서 내려 물이 물길을 만들어 동네를 한바퀴 돌아 나가도록 만들어져 생활용수로 활용하게 돼 있다. 조선인이 숨겨져 기어다 다니는 감탄을 자아낸다.

가족과 함께 자연과 어우러진 초가집, 기와집, 한바, 두도두도 구경해보고 돌담길에 마련된 관리사무소를 찾아 문화해설사의 자세한 설명을 들으며 역사공부를 겸해도 좋은 곳이다.

봉곡사를 오르는 솔밭길은 가을아침 만경이 나 신선하다.

추차장에 차를 세우고 적당하게 가을 어진 언덕을 오르면 오솔길 양옆으로 솔바람 소리가 들려온다. 물러다 보면 눈시울이 저릴 정도로 파란 하늘과 맛달아 완구름을 가로막고 있는 솔바람이 불면 서서히 있을 움직여 들릴 듯 말릴 듯 쉬이쉬이 자신을 내보인다. 이렇게 우람하게 자란 소나무도 한때는 건디기 힘든 시련에 시달렸던 다. 일제 침략력이 송진을 얻기 위해 삼척년 부위가 시달린 아픔이 자국으로 남아 내려 앉은 슬픈 시련의 시대를 살아온 모습 그대로를 간직해 보여주고 서있다. 가족과 함께 평소 하지 못했던 간소한 이야기를 하며 소담하고 걸어 볼만한 소나무 오솔길이

있어 봉곡사 가을길이 정경기만 하다.

충북 청원에 운보의 집이 있다면 아산엔 달림미술관이 있어 문화시민으로의 자부심을 갖게 한다. 송아면에 위치해 있어 충남 먼단위 미술관으로는 유일무이한 문화예술공간이기도 하다.

이중무화백의 생활지이며 작품과 함께 역작을 위해 몰입하고 고뇌한 화백의 생전 흔적들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아주 가까이서 작가의 예술혼을 느껴볼 수 있는 찾기 드문 미술공간이다.

규모는 작지만 자연과 어우러진, 아니 자연속에 하나 된 달림미술관은 365일 하루같이 지고한 예술혼의 체취를 풍기면서 형식 가지 사시 미술을 이기고 사랑하며 함께하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



▲ 봉곡사 솔밭길

지금 한 줄 거음은 책읽은 것에 비할 것이 없다. <명심보감>